

4 노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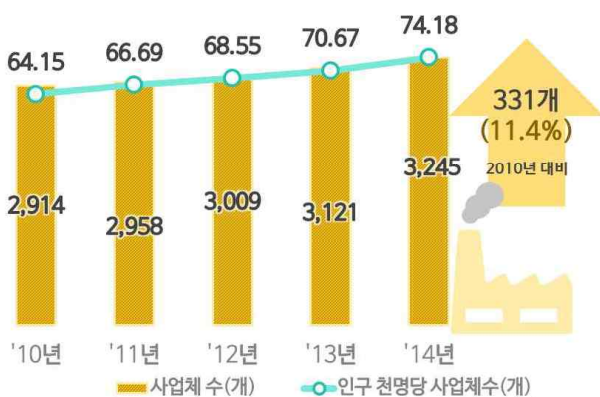
1)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기타

2014년 기준 사업체 수 3,245개, 종사자 수 9,974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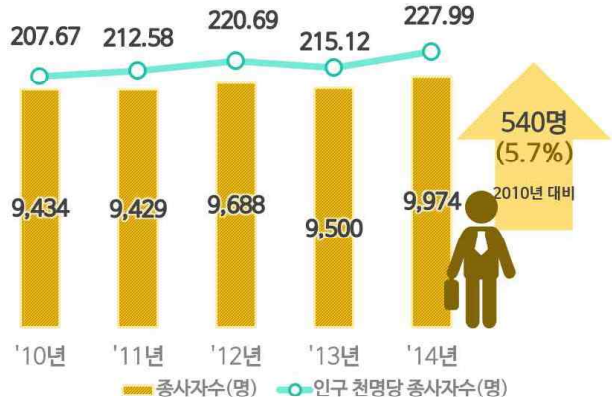
○ 2014년 기준 사업체 수는 3,245개로 전년보다 124개(4.0%), 종사자 수는 9,974명으로 전년보다 474명(5.0%) 증가

- 2010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331개(11.4%), 종사자 수 540명(5.7%) 증가
- 「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」는 74.18개로 2010년에 비해 10.03개 증가
- 「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」는 227.99명으로 2010에 비해 20.32명 증가

〈그림 4-1〉 사업체 수



〈그림 4-2〉 종사자 수



〈표 4-1〉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

(단위: 개, 명)

	사업체 수	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	종사자 수	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
2010년	2,914	64.15	9,434	207.67
2011년	2,958	66.69	9,429	212.58
2012년	3,009	68.55	9,688	220.69
2013년	3,121	70.67	9,500	215.12
2014년	3,245	74.18	9,974	227.99

자료: 통계청, 「전국 사업체 조사」, 행정자치부 「주민등록인구」

2) 경제활동인구 총괄 [기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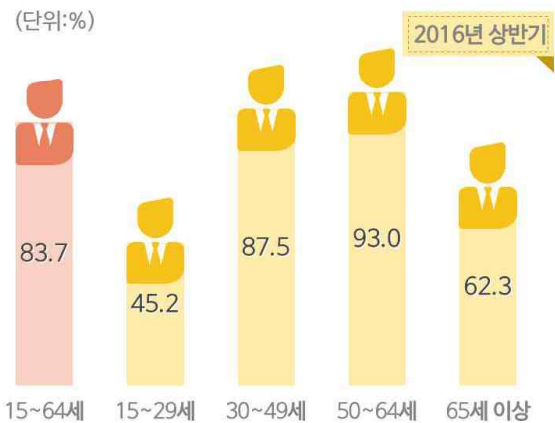
2016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 74.9%, 고용률 74.9%

- 2016년 상반기 「경제활동인구」는 24.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.9천명(3.5%) 감소
- 「경제활동참가율」은 74.9%로 전년 동기대비 1.8%p 감소
- 「고용률」은 74.9%로 전년 동기대비 1.3%p 감소

〈그림 4-3〉 경제활동인구



〈그림 4-4〉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



〈표 4-2〉 경제활동인구 총괄

(단위: 천명, %)

연도	15세 이상 인구	경제 활동 인구	경제 활동 참가율	경제 활동 인구		고용률	고용률 (%)					실업자	실업률	
				남자	여자		15~64세	15~29세	30~49세	50~64세	65세 이상			
2012	1/4	32.7	24.4	74.5	81.2	67.7	74.1	-	-	-	-	-	0.1*	0.5*
2012	2/4	32.9	25.1	76.2	83.4	69.0	75.9	-	-	-	-	-	0.1*	0.4*
2012	3/4	33.1	25.0	75.4	83.1	67.7	75.4	-	-	-	-	-	0.0*	0.0*
2012	4/4	33.5	24.7	73.8	82.5	66.0	73.7	-	-	-	-	-	0.0*	0.2*
2013	1/2	33.3	25.3	75.8	83.2	68.8	75.0	84.0	41.6	90.6	93.6	61.0	0.3*	1.1*
2013	2/2	33.4	25.3	75.6	83.5	67.6	75.5	84.0	39.7	90.3	93.8	62.6	0.0*	0.1*
2014	1/2	33.6	25.6	76.1	83.9	68.2	76.1	84.5	43.8	90.0	93.6	63.4	0.0*	0.0*
2014	2/2	33.5	25.7	76.7	84.9	68.4	76.6	86.4	53.1	91.0	93.5	61.9	0.0*	0.2*
2015	1/2	33.2	25.5	76.7	84.6	68.6	76.2	85.1	49.7	89.4	93.4	63.1	0.2*	0.7*
2015	2/2	33.0	25.0	75.7	83.3	67.9	75.7	85.1	46.8	89.1	94.1	62.1	0.0*	0.0
2016	1/2	32.9	24.6	74.9	83.5	66.1	74.9	83.7	45.2	87.5	93.0	62.3	0.0*	0.1*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 고용조사」
 주. 상대표준오차(C.V.)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'*'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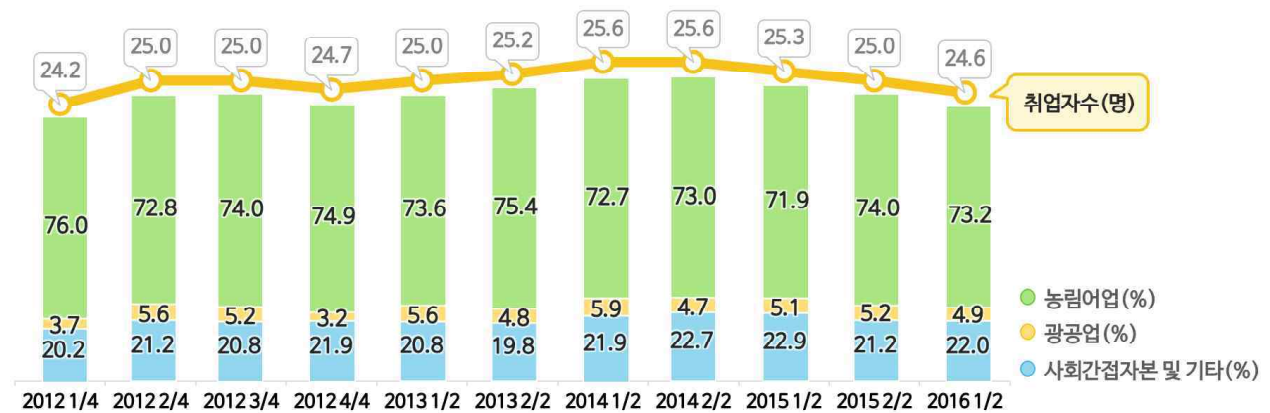
3)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기타

2016년 상반기 「취업자 수」는 24.6천명, 산업별로 「농림어업」이 73.2% 차지

○ 2016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24.6천명 중 「농림어업」 73.2%, 「광공업」 4.9%, 「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」 22.0%로 나타남

-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(2015 1/2) 대비 0.7천명 감소하였으며, 산업별 구성비는 「농림어업」 1.3%p 증가, 「광공업」 0.2%p, 「도소매·숙박음식」 1.4%p, 「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」 0.1%p 각각 감소함

〈그림 4-5〉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



〈표 4-3〉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

(단위: 천명, %)

	취업자 수 (천명)	농림어업	광공업	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	도소매· 숙박음식	사업·개인·공공 서비스 및 기타
2012 1/4	24.2	76.0	3.7	20.2	7.0	9.5
2012 2/4	25.0	72.8	5.6	21.2	7.2	10.0
2012 3/4	25.0	74.0	5.2	20.8	6.8	10.0
2012 4/4	24.7	74.9	3.2	21.9	7.7	10.1
2013 1/2	25.0	73.6	5.6	20.8	7.2	10.0
2013 2/2	25.2	75.4	4.8	19.8	7.1	8.7
2014 1/2	25.6	72.7	5.9	21.9	7.0	10.2
2014 2/2	25.6	73.0	4.7	22.7	7.4	10.9
2015 1/2	25.3	71.9	5.1	22.9	8.3	9.9
2015 2/2	25.0	74.0	5.2	21.2	7.6	8.8
2016 1/2	24.6	73.2	4.9	22.0	6.9	9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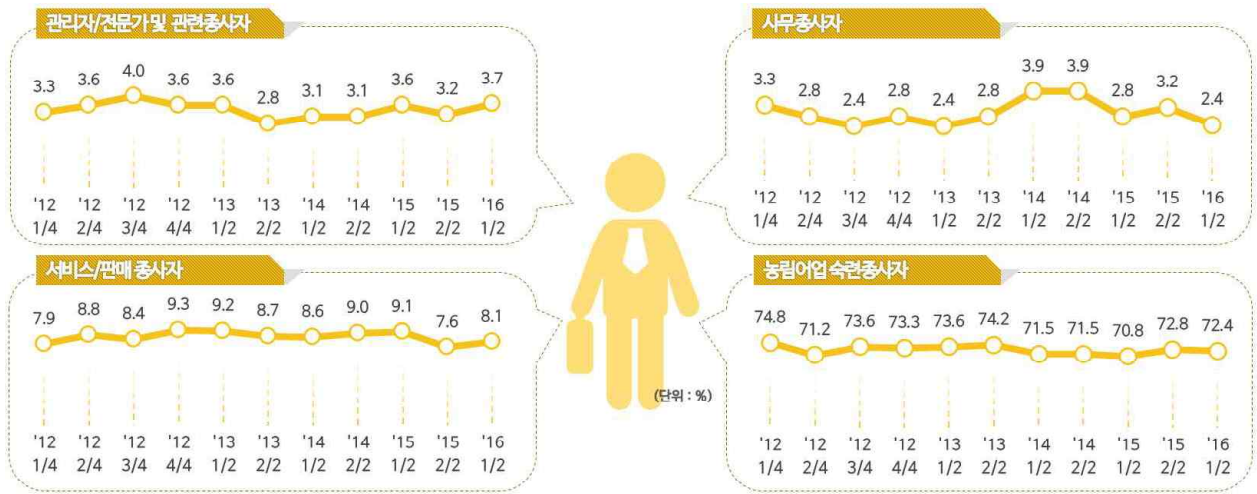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 고용조사」

4)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[기타]

2016년 상반기 직업별 취업자는 「농림어업 숙련종사자」가 72.4%로 가장 많아

- 2016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24.6천명 중 직업별 구성비는 「농림어업숙련종사자」가 72.4%로 가장 많고, 「서비스, 판매종사자(8.1%)」, 「기능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(7.3%)」 순으로 나타남
-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는 전년 동기(2015 1/2) 대비 「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(0.1%p)」, 「농림어업숙련종사자(1.6%p)」, 「단순노무종사자(0.2%p)」는 증가한 반면, 「사무종사자(0.4%p)」, 「서비스, 판매 종사자(1.0%p)」, 「기능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(0.2%p)」 감소함

〈그림 4-6〉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



〈표 4-4〉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

(단위: 천명, %)

연도	취업자 수 (천명)	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	사무종사자	서비스, 판매종사자	농림어업 숙련종사자	기능,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	단순노무 종사자
2012 1/4	24.2	3.3	3.3	7.9	74.8	6.6	4.1
2012 2/4	25.0	3.6	2.8	8.8	71.2	8.4	5.2
2012 3/4	25.0	4.0	2.4	8.4	73.6	7.6	4.0
2012 4/4	24.7	3.6	2.8	9.3	73.3	5.7	5.3
2013 1/2	25.0	3.6	2.4	9.2	73.6	8.0	3.6
2013 2/2	25.2	2.8	2.8	8.7	74.2	7.1	4.0
2014 1/2	25.6	3.1	3.9	8.6	71.5	8.2	5.1
2014 2/2	25.6	3.1	3.9	9.0	71.5	7.4	5.1
2015 1/2	25.3	3.6	2.8	9.1	70.8	7.5	5.9
2015 2/2	25.0	3.2	3.2	7.6	72.8	8.4	4.8
2016 1/2	24.6	3.7	2.4	8.1	72.4	7.3	6.1
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 고용조사」

5)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[기타]

2016년 상반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6.1%

- 2016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24.6천명 중 임금근로자는 4.1천명, 비임금근로자는 20.6천명으로 나타남
-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대비 0.5천명(10.9%) 감소, 비임금근로자는 0.1천명(0.5%)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6.1%로 전년 동기대비 4.8%p 감소한 반면, 임시·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43.9%로 전년 동기대비 4.8%p 증가

〈그림 4-7〉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



〈표 4-5〉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

(단위: 천명, %)

	취업자 수 (천명)	임금근로자 수 (천명)	상용근로자 (%)	임시·일용근로자 (%)	비임금근로자 수 (천명)
2012 1/4	24.2	3.7	54.1	45.9	20.5
2012 2/4	25.0	4.2	52.4	50.0	20.8
2012 3/4	25.0	3.7	56.8	43.2	21.3
2012 4/4	24.7	3.8	55.3	44.7	20.9
2013 1/2	25.0	3.5	54.3	45.7	21.5
2013 2/2	25.2	3.8	55.3	44.7	21.4
2014 1/2	25.6	4.6	60.9	41.3	21.0
2014 2/2	25.6	4.6	60.9	39.1	21.1
2015 1/2	25.3	4.6	60.9	39.1	20.7
2015 2/2	25.0	4.1	58.5	41.5	20.9
2016 1/2	24.6	4.1	56.1	43.9	2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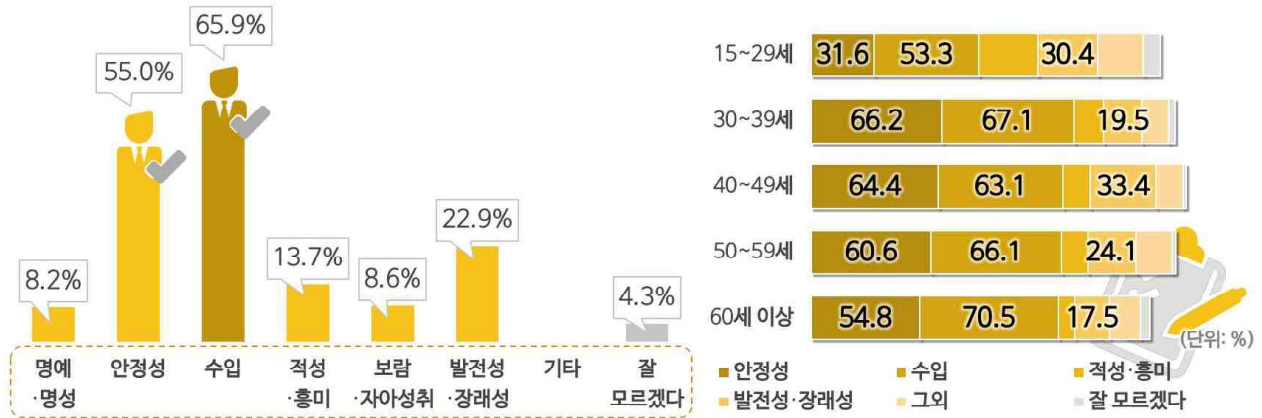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 고용조사」

6) 직업 선택의 주 요인(복수응답) (공통)

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「수입」이 65.9%로 가장 높아

-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「수입」이 65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「안정성(55.0%)」, 「발전성·장래성(22.9%)」, 「적성·흥미(13.7%)」 순으로 나타남
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중부권, 북부권 및 서남부권 모두 「수입」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함
- 성별로 살펴보면, 남자와 여자 모두 「수입」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
- 모든 연령층이 「수입」과 「안정성」, 「발전성·장래성」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나타남

〈그림 4-8〉 직업 선택의 주 요인



〈표 4-6〉 직업 선택의 주 요인(복수응답)

(단위: %)

	명예·명성	안정성	수입	적성·흥미	보람·자아성취	발전성·장래성	기타	잘 모르겠다
2016년	8.2	55.0	65.9	13.7	8.6	22.9	-	4.3
중부권	6.0	56.9	67.2	13.6	3.6	22.3	-	3.0
북부권	12.7	48.4	60.1	18.3	14.0	29.1	-	3.8
서남부권	7.5	57.2	68.3	11.0	10.0	19.7	-	5.9
남자	9.9	57.2	66.0	14.9	9.5	23.2	-	2.4
여자	6.3	52.5	65.8	12.5	7.7	22.6	-	6.4
15~29세	9.6	31.6	53.3	29.8	13.6	30.4	-	8.5
30~39세	2.5	66.2	67.1	14.8	11.1	19.5	-	3.3
40~49세	2.6	64.4	63.1	14.0	10.9	33.4	-	1.5
50~59세	9.2	60.6	66.1	13.7	9.2	24.1	-	1.9
60세 이상	10.1	54.8	70.5	8.3	5.5	17.5	-	5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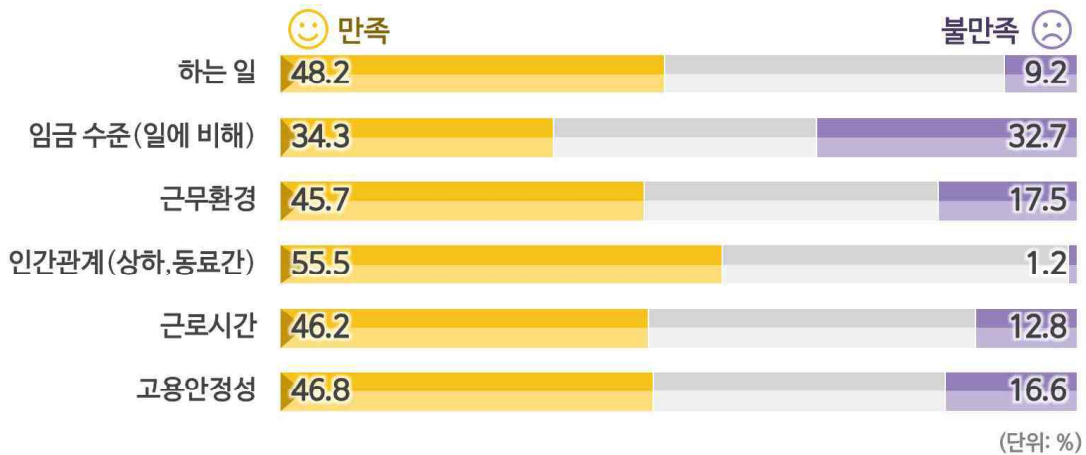
자료: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

7) 일·직장에 대한 만족도 (공통)

근로자, 일·직장 분야별 만족도 중 「인간관계」가 55.5%로 가장 높아

- 임금근로자의 일·직장 6개 분야별에 대한 만족비율은 ‘인간관계(상하, 동료간)’가 55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‘하는 일(48.2%)’, ‘고용안정성(46.8%)’ 순으로 나타남
- 분야별로 「불만족」 비율이 높은 분야는 ‘임금 수준(일에 비해)’ 32.7%, ‘근무환경’ 17.5%, ‘고용안정성’ 16.6% 순으로 나타남

〈그림 4-9〉 일·직장에 대한 만족도



〈표 4-7〉 일·직장에 대한 만족도

(단위: %)

분야	계	만족			보통	불만족	불만족	
		매우 만족	약간 만족	약간 불만족			매우 불만족	
하는 일	100.0	48.2	17.5	30.6	42.6	9.2	8.5	0.7
임금 수준(일에 비해)	100.0	34.3	11.9	22.4	33.0	32.7	23.2	9.5
근무환경	100.0	45.7	15.1	30.6	36.8	17.5	14.8	2.7
인간관계(상하, 동료간)	100.0	55.5	18.4	37.2	43.3	1.2	1.2	-
근로시간	100.0	46.2	17.0	29.2	41.0	12.8	11.3	1.4
고용안정성	100.0	46.8	16.0	30.8	36.6	16.6	12.6	3.9

자료: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

주.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(상용직근로자, 임시직·일용직 근로자)인 사람